

# 서울 남북권 가로지르는 경전철 민투심 통과로 16년 만에 '탄력'

새철역~서울대입구역 15.6km 연결  
출퇴근 시간↓ 지역균형 발전 기여  
1.5兆 투입... 2026년 착공 예상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교통 소외 지역인 서남·서북권을 잇는 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 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 시설 취약 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새철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해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와 실시 협약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해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 여건으로 인해 일부 건설 출자자가 탈퇴했다"면서 "시는 사업 시행자가 신규 건설 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실시 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의 4.24%가 인상돼 기존 계획보다 642억원 늘어난 1조578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 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윤중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하게 됐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청년 예비인턴 80명 직무경험 쌓아

서울시, 39개 기업에 청년인턴 배치

서울시는 '청년 예비인턴' 사업을 통해 39개 기업에 젊은이 80명이 배치돼 직무 체험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예비인턴은 학교·학점보다 직무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취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전부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경영·총무·인사, 마케팅·홍보, IT·개발을 포함 다양한 직무 분야에 배치된 80명의 예비인턴이 지난 8월 1일부터 올 12월 11일까지 서울교통공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등 39개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았다. 시는 청년인턴의 직무 능력이 향상됐고, 사업 만족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예비인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알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나누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과 기업이 활동 성과와 참여 소감을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최민창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직렬을 정하지 못하던 중



서울 청년 예비인턴 성과 공유회. /서울시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공공기관은 경직된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 문화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인턴 경험을 마치고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는 청년과 신입 직원을 찾고 있는 기업을 위한 매칭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취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구직 활동에 뛰어난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 확대를 위해 예비인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취약계층 10가구 주거환경 개선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사업 '맞손'

서울시는 이달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혜 가구를 선정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수리 사업비 2억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반지하·옥탑방 등 최소 주거 면적(2인 가구 기준 26㎡) 이하 저층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10가구다. 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가운데)이 17일에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 안심 동행 민관 협력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김희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우),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열·방수와 같은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후원 기업·비영리 단체와 주거 복지시각 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 캠퍼스 개관

서울시, 연간 110명 인재 양성 계획

서울시는 18일 은평구 녹번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 캠퍼스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신기술분야 실무 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은평캠퍼스는 연면적 908.55㎡, 지상 3~4층 규모에 강의실과 복합공간 등을 갖췄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웹 프로그래밍 교육과 디지털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정 등을 제공해 연간 11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의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은평 캠퍼스까지 총 19개 인재 양성 기관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평균 취업률은 75%, 교육 만족도는 89%에 달한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 광양시,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6029억 반영

올해 5749억 대비 280억 늘어

광양시는 2025년도 정부예산과 전남도 예산에 국도비 6029억 원을 반영시켜, 역대 최초로 국도비 6000억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2024년도 5749억원 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과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인화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국회,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정인화 시장이 직접 기재부를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해 정부 예산

안에 4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를 한창인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에게 사업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 ▲광양항 광역 준설투기장 1329.8억원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전남 연수원 80억 원 ▲광양(Ⅰ) 노후관 개량 122.7억 원 ▲광양(Ⅱ) 신·구노후관 개량 63.9억 원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66.2억 원 등을 확보했다.

주요 도비 사업으로는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9.5억 원 중 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5억 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6억 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20억 원 등을 확보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서울에너지공사

## 황보연 신임 사장 임명



서울시는 18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에 황보연 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신임 사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서울시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황보연 신임 사장이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리더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 방안 논의

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 자문받아

경기도가 19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논의하는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총 3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유진제 기자 yujin@